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4

다같이 하나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리



청아하고 푸른 뱀띠의 빛나는 해, 을사년의 새 희망
회원들의 손을 맞잡고, 다같이 한 길을 걷네
긴 세월의 이야기, 하나된 마음으로
건강과 우정을 쌓아온 우리는 또 다시 나아가리

한국인의 전통인 구정을 기리며
그 속에 화합과 희망을 담고,
새해 새 날을 걸어가리
활기찬 우리의 발걸음, 희망찬 내일을 향해
또다시 하나로 뭉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리

자랑스럽게 이어온 멋진 골든클럽,
우리들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되어, 밝고 힘찬 새해를 걸어가리라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골프,
등산, 야유회 등으로 건강을 다지며
굳건히 하나되리

월간지 회보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멋지게 나아가리
27년째 맞이한 자랑스러운 우리 골든클럽,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음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리라

[시 여주영(명예회원)]

2025 Golden Club 신년교례회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교례회가 3월 22일(토), 장소를 변경하여 Hilton Hotel에서 열립니다. 작년까지 사용하던 Doubletree Hotel 일대의 심각한 교통 체증과 호텔 진출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이 편리한 I-80와 Rt 17 교차지점에 있는 Hilton Hotel로 연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운전이 불편하여 참석이 어려운 선배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주간으로 변경하고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서 함께 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4시

장소: Hilton Hotel,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회비: 1인당 \$120

저희 회원님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며, 올해 신년교례회 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맞춤형 자세 교정 기구입니다.

최근 어깨가 구부정해지거나 허리가 굽는 등 자세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자세 교정 기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와 어깨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영범(공대71) 가족



천병수(공대70) 가족



박기환(문리58) 가족



김정필(공대71) 가족



정해민(법대5) 고문 가족



조달훈(사대67)조승자가족- 12월에 어깨수술하고 회복중



홍종만(공대64)회장은12월에 이어1월달에도 Myrtle Beach 전지훈련



곽선섭(공대60) 회원덕에서 12월30일에 모인 송년회

김충정 (상대 64)



Arches National Park



Iceland Travel



Iceland Travel

어린시절

성경에 등장하는 여 선지자인 드보라를 착안하여 할머니의 성함을 도라로 지을 만큼 기독교 신앙이 깊이 자리잡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머니의 아버지가 인천 내리교회 강도사로 활동하였고 신문물을 일찍부터 접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집안도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환경이었다. 7살 때 6.25를 겪게 되었는데 피난을 미처 하지 못하여 서울에서 인민군들이 활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어린 나이에 전쟁에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은 뒤로 하고 수월하게 무시힘으로 합격이 보장된 용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어린시절의 나는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그 꿈을 펼치기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대학교 진학을 서울대 농대를 지원하려 했으나 한국기계공업 육성의 원대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공대 입학을 꿈꿨으나 낙방하여 고배를 마셨다. 이를 계기로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공을 깊이 고민하며 서울 상대에 도전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청년 및 중년 한국생활

1967년 대학교 4학년 여름에 오비맥주 입사가 결정되어 1968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두산그룹 기획실에서 근무하며 감사팀장으로 그룹내 회사들을 감사하였다. 특히 건설회사를 감사하면서 토목/건설회사의 복마전 같은 재무관리를 눈으로 보게 되어 직접 경리부장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였고 뒤이어 사우디 지점을 개설하는 업무를 맡아 사우디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이민을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본사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나를 설득하여 본사에서 1달을 쉬고 코카콜라에서 1년을 더 근무하였으나 나의 미국이민에 대한 의지는 회사의 끈질긴 설득에도 꺾이지 않아 사표를 내고 이민을 왔다. 이민 이후에도 회사 복귀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가족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려는 강한 의지를 설득하기 어려워 한국행을 결국 포기하였다.

미국이민생활

대학 졸업 후 주변 친구들이 유학 준비를 많이

할 때에도 ‘유학은 안 간다’ ‘외국에 나갈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완고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의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과 미국연수 및 해외 출장 등을 통한 경험, 인생 후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성찰로 마침형 제초청 케이스가 풀려 가족 이민을 결정하여 1983년 4월 뉴저지로 정착하게 되었다. 대학원 입학의 권유도 많았으나, 세 딸을 가진 아빠로서 제대로 삶을 꾸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카드 앤 기프트’, ‘델리 스토어’를 맨하탄에서 운영하다가 아이들 돌봄을, 뉴저지에서 세탁소 사업을 시작하여 30년 이상을 하다가 2016년말 은퇴를 하였다. 은퇴 이후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여행자로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있다. 미국 대륙 횡단여행/ 일주여행을 6번 하였고 3대양 6대주 50여개국을 배낭여행을 즐겼다. 지금도 일년에 한번은 석달 정도의 해외 배낭 여행, 한차례 대륙횡단 차박 캠핑 등의 방법으로 자연을 벗삼아 타지를 탐험하기를 즐기고 있다.

신앙생활 및 선교적 사역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었고 한국에서 36살의 젊은 나이에 장로 직분을 받았다. 이민 후 처음에는 뉴욕에서 교회를 출석하다가 뉴저지로 이사후에는 두번의 교회 개척에 힘을 보태었고 그 중 하나인 찬양교회는 목사님 가족, 처제 가족과 함께 시작하여 아직도 출석하여 36년이 되었다. 미국 이민하여 처음에는 청년사역에 뜻을 품고 시작하였으나 청년기를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고 현지인 만큼의 영어가 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껴 방향을 시니어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시니어 사역 가운데 건강, 사회보장 혜택 등은 많은 봉사 기관들이 하고 있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던 중 자녀 교육이 끝난 55세부터 관련 기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상담과 신학 공부로 준비하였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헌신할 기관을 Family Touch로 정하여 20년 동안 “죽음 준비 학교”(8주 과정)를 개설하여 천 여명의 시니어 동포들의 은퇴 후 삶을 재조직하는 교육에 힘썼다. [정리 김병순(사회82)]

일본여행을 상상해봅니다

■ 손대홍(미대9)

30명이 한국을 다녀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와 동해 바다를 감상하며 맛집을 다녔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당시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나름 회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언젠가 일본여행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흥종만 회장님이 이를 기억하시고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회원들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었던 원죄(?)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젊은 시절 잠시 일본에서 보냈던 것 때문에 저를 일본 전문가로 생각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한국에서는 3권의 번역서도 출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매달 한두번씩 일본 출장을 다녔고 저에게는 미국보다는 아직도 일본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번 11월말에도 도쿄 출장이 있어 다녀왔지만 저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어서인지 항상 반갑고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일본여행을 간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오면 뉴욕을 거쳐야 하듯, 일본도 도쿄를 반드시 들려봐야 할까? 한국의 경주처럼 일본의 오랜 역사가 남아 있는 교토(京都)와 나고야(名古屋) 같은 곳을 가야 할까? 아니면 신선한 해산물에 해수(海水) 온천이 있는 바닷가와 아름다운 산속의 온천이 있는 지방으로 가야할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토가 긴 편이라서 남북간의 이동에 제법 시간이 소요되고 신간선(新幹線)과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간다면 한국이 지적이니 우선 한국으로 가서 시차를 맞춰 일본여행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지만, 일부 도시의 관광일정과 아름다운 풍광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일본의 바다와 온천을 잘 섞어서 1주일 정도의 스케줄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일본여행! 저는 강추합니다. 요즘 중국인,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가는 좋은 장소에 꼭 가봐야할 곳을 잘 믹스하고 날씨를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온천을 마치고 코끝을 스치는 맑은 공기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선한 해산물에 맛있는 사케 한잔을 곁들이는 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자비전 청이불문 見者非全 聽而不聞

■ 금영천 (약대 72)

나는 항상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항상 생각한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명이나 건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사물의 본성과 본질을, 추측하며,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결혼 4년 만에 딸을 갖게 된 아들 내외가 손녀의 한글 이름을 지어 달라는 요청에, 나의 아내가, 부르기도 쉽고 집안의 돌림자를 꼭 쓸 필요가 없으니 예은(예수님의 은혜) 이라고 짓자고 해서 첫 손녀의 이름이 결정되었다. 지난해 아들집에 방문했을 때에 예은이가 일곱살이 되는 시기에 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아들에게서 우리 집안에서 처음 태어나는 손자이니, 우리 금씨 가문의 돌림자를 넣어 한글 이름을 짓고 싶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어찌 기쁘던지,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여러 날을 고심하여 “종원” 이라고 이름 짓고 아이의 이름의 뜻을 알려 주었다. 손자는 봉화 금씨 부위공파 30세이고 돌림자는 종(쇠북, bell)이고, 원은 모든 것의 시작 또는 으뜸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나의 이름은 지어 주신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 시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셔서, 그분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어머니와 형님들께 물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어 가며 할아버지의 심성을 이해해가던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한의사로 상당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셔서, 일제치하에서 한의사로는 드물게 한지면허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침술로 유명하고, 진맥만으로 임신 유무와 쌍태 임신까지 알아냈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성격은 괴팍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린아이들을 싫어하여 동네 아이들은 무서운 할아버지를 피해 달아나곤 했다고 한다. 한 예로(어머니 말씀), 타지에서 와서 이웃집 행랑채에 살며 사소한 일들을 도우며 생활하는 행색이 초라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진료를 받으러 왔었다. 젊은이의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 몇 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토와 출혈이 있어, 가까운 병원도 없고 위급상황이라 생각해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아내를 부축하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이의 행색과 그의 아내를 잠시 쳐다보고 진맥을 한 다음, “집에 가서 아궁이 밑바닥을 파고 그 아래의 흙을 끓여 그 물을 먹이면 된다” 하고 젊은 내외를 돌려보냈다고 한

다.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행색이 초라하고, 진료비는 고사하고 약값도 못 낼 것 같으니 쫓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군청으로 가서, 동물에게도 주지 않는 흙을 아픈 사람에게 먹이라고 하는 돌팔이 한지 의사를 고발하게 되었고, 군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한지 의사 면허를 취소시켰다고 한다. 또한 예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모질게 대해, 동네 아이들이 앞마당에 들어와 뛰어다니거나 장난 치며 놀면, 큰소리를 치거나, 부지깽이를 휘둘러 아이들을 쫓아 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은, 내가 약대에 진학하여 본 초학 강의를 수강하며, 재평가하고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처방인 아궁이의 흙은 “복통간”이라는 한약재로 일반적인 아궁이 밑의 흙이 아니라 오래된 아궁이 바닥에서 불기운을 받아 저절로 멍쳐진 별건 돌 같은 흙덩어리이며, 속은 누렇고. 모양이 8각으로 된 것을 보드랍게 갈아서 두 번 수비(물속에 풀어주고 양금을 침전시켜 고운 입자를 채취하는 법)하여 말린다. 또는 아궁이 바닥 가운데, 즉 솔 바로 밑의 흙을 불에 빨강게 달구어 보드랍게 갈아 수비하여 쓰기도 한다. 급하게 쓸 때에는 아궁이 바닥 흙을 태워서 갈아 써도 된다고 한다. 약효는 부인의 자궁 출혈과 피가 섞여 나오는 구토 증상을 치료한다. 딸꾹질과 출혈을 멈추게 하고 종기와 상처를 아물게 하며 해독시킨다. 대장 출혈, 여자들의 대하증, 깨어 있거나 수면 중에 정액이 저절로 새는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출산할 때 태반을 빨리 나오게 하며 어린아이들이 밤에만 보채고 우는 증상을 낫게 한다. 그리고 이약의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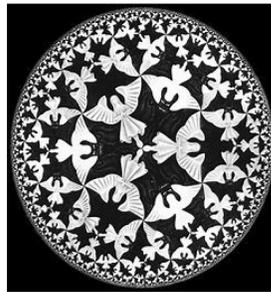
결인 일행이 산사의 취사장에서 쉬고 있었다. 취사장의 솥은 깨져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협성과 편견을 경계하는 말이 견자비전(見者非全)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청이불문(聽而不聞)은 아무리 귀기울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듣고도 모른 체한다는 말이다.

있으며, 잠을 잘 수 있는 방도 하나뿐인 황폐한 절이었다. 그날 밤은 아침까지 폭설이 내려서 많은 눈이 쌓였다. 사람들은 마을에 가서 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절에서 추위를 피하며 가만히 있었다. 그때 일행중의 한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토하고 코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했다.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토하고 코피가 날 때는 아궁이의 흙을 먹으면 낫는다고 어머니께 들었다고 말했다. 아궁이의 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다른 사람이 물었다. 노인은 그것은 아궁이를 만들때 사용하는 흙이라고 대답했다. 민간요법으로 의사도 필요 없으며, 돈도 필요 없으므로 한번 시험해보자. 모두들 동의했기 때문에 깨어진 아궁이에서 황토를 채취해 끓인 물 마시게 했다. 한자가 그것을 마시자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났으며 조금 지나서 토기와 코피, 설사가 멎게 됐다. 친구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래서 모두가 아궁이의 흙을 조금씩 채취하여 갖고 다니다가 어딘가의 마을에서 이와 같은 환자를 만나면 치료해 주자고 했다. 사람들은 의논을 하여 걸식하는 것을 그만두고, 약을 팔러 다니기로 했다. 모두들 약 파는 것을 동의했다. 모두들 고심해서 약의 이름을 아궁이의 흙이라고 하기로 했으나, 그것은 약의 내용이 즉시 알려지기 때문에 다들 지혜를 모아서 다른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다. 색깔이 돼지 간과 비슷하므로 구하기 어려운 용의 간의 이라는 “복룡간”으로 이름 지어져 한약의 하나로 사용되게 된 것이라 한다.



M.C. Escher, Circle Limit IV (1960) The angels and devils



Rotate Picture - 페이지를 돌려 보세요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젊은 부부에게 환자를 유심히 쳐다본 것은 진찰의 하나인 망진(초라한 행색을 본 것이 아님)과 맥진에 따르면, 젊은이의 아내는 입덧이 남들 보다 심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으니 산모와 태아에 부작용이 적은 약재로, 이는 오래된 아궁이를 한자쯤 파면 황색 또는 붉은색이 나는 흙이 나오는데 이것을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복룡간(伏龍肝)이라고 한다. 10-20그램을 천으로 싸서 달여, 그 물을 수시로 먹으면 임신 구토, 복통, 자궁출혈과 토혈을 다스리고 유산도 방지할 수 있으니, 그리 하면 젊은이의 아내는 쾌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젊은 부부의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채집하거나 재배된 약재는 법제 또는 수치(法制, 修治)라는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켜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약재의 보존성을 높이게 한다.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햇빛에 말리거나, 굵거나, 술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다. 한 예

로 보혈 강장 강정제로 허약한 사람에게 유효한 약으로 인삼처럼 중요한 약재인 숙지황을 만드는 과정에는 별에 말린 지황을 찌서 햇빛에 말리기를 9번 하고 찢 때 마다 찹쌀로 만든 청주를 뿌려서 찢다. 앞마당의 멍석에 말리고 있는 귀한 약재를 휘젓고 다니고, 장난 삼아 집어가는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부지깽이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어린이들에게는 못된 할아버지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뛰고 놀다 다쳐 발이 부으면, 부모님의 등에 업혀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무섭고 아픈 침을 맞아야 했으니, 모든 동네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만 보면 도망 것은 당연했으리라 짐작하게 되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1960년대 처음 정립한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확증편향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미 굳건하게 형성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변화 자체가 내포하는 것이 곧 위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능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주장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비튼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게 되는 셈이다. 최근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양극화 현상을 비롯해 가짜 뉴스등도 확증편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만이 정의라며 상대를 비난, 조롱하고 욕을 할 경우는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나무와 숲을 함께 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진실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의 공동체라는 부분과 전체의 개념에서, 개인 또는 공동체라는 두 개의 나무와 숲과 같은 관계에서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모두를 고려할 때 오는 단기적이고 상대적인 불이익이나 불공정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을 수도 있다. 나무와 숲을 모두 보는 것이 필요함에도 말이다.

회원 명단 (110명 / 2025-1-25)

강교숙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한민우
강에드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순	한영수
강영선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임도현	한용오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수일	한태진/
고애자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한용희
곽상준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승자	허용웅
곽선섭	김창수	송근숙	이상원	정해민	허유선
권문웅/	김충정	송용길/	이승준	조상근	홍정표
권정덕/	김치갑	송현자	이 준	조상선	홍종만/
홍선경	김태일	송하린	이대연	주재양	홍예경
권영대	김한중	송혜순	이대영	진봉일	
권대전	김현중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금영천	노승만	신응남	이용대	천종화	
김광수	노용면	오순문	이위근	최구진	
김광현	민준기	오용호	이전구	최병우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종대	최순채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종석	최준희	
김문연	박준구	유무영	이준행	최진영	
김병순	박희병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홍빈	최하주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12명 / \$1200 / 2025-1-25)

곽선섭
김충정
민준기
성기로
손갑수
신진식
오용호
윤상영
정수일
홍종만
홍예경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5명 / \$3000 2025-1-25)

김옥수 200 정해민1000
성기로 500 홍종만 1000
신진식 3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변경사항만 기재)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입회비 \$200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연회비 \$100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후원금 (\$))

주소 (Home): _____

골든클럽 2025년 행사 일람 (2025-1-25)

2월		
3월	13일(목)	하이킹
	22일(토)	신년교례회
4월	24(목)	골프대회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6월	26(목)	골프대회
7월	17(목)	골프대회
8월	14(목)	골프대회
9월	11(목)	골프대회
10월	9(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16(목)	하이킹
	30(목)	골프대회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7일-13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 | |
|-----------|-----------|
| 고애자(사대58) | 여주영(명예) |
| 권문웅(미대61) | 이영범(공대71) |
| 김익성(상대53) | 이종석(상대57) |
| 김정필(공대71) | 한영수(의대61) |
| 김창수(약대64) | |
| 김현중(공대63) | |
| 손옥화(생과69) | |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